전북새일센터, 직장문화개선 전문가 회의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29일 2024년 직장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여성 경력단절이 이뤄지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올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제도가 확대됐다.

전정희 원장은 "올해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함은 물론, 기업에서 필요한 여성인력을 연계하고, 취업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남원 동충동, 남원사회복지관과 '우리마을 돌봄단' 발대식

남원시 동충동은 남원사회복지관과 지난달 26일, "우리마을 돌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돌봄단은 남원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연 7,000만원)을 받아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Ⅱ"의 일환으로, 늘어가는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정부의 고독사 예방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돌봄단은 동네 사정에 밝은 동 13개 통장과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 및 연계해 위험 가구가 스스로 고립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통해 도울 예정이다.

복지관 강정아 관장은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친숙한 통장님들과 부녀회에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차남 동장은 "사회복지관과 돌봄단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도통동, 치매 예방 건강 프로그램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달 29일 동부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동 간호직공무원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연계를 통해 '치매 바로알기'를 주제로, 치매 원인,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 예방체조 등이 진행됐다.

도통동은 건강 프로그램을 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남원시 치매예방교육용 모바일앱 '기억하리' 사용법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건강체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정읍시가 면역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월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정읍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었으나, 올해는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접종 장소는 위탁의료기관 50개소이며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접종 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예방 접종대상확인서(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야 한다. 예방접종대상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행정 소통플랫폼 '정읍 소통방' 구축

정읍시가 시민과의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정읍 소통방'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시민들은 정읍 소통방을 통해 시정 발전 전략 등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공감 수 50건을 달성한 제안은 시 시민소통위원회 심사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또한 시정 관련 설문과 투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패널을 모집하고,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소통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라며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방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자봉센터, 아이들과 함께 줍킹 활동 나서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9일, 벽골제를 찾아 지역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어린이 80여명과 '탄소중립실천 함께해요 줍킹' 활동에 나섰다.

이날 활동은 자원봉사센터와 5개소의 어린이집 연합 참여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님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쓰레기로 오염되는 지구의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체험했다.

줍킹에 참여한 아이들은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지구 특공대가 된 것 같아 기쁘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여 한 부모는"아이와 함께하는 봉사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아이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참여해 봉사활동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되어 기쁘고 줍킹을 실천하면서 지구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진안경찰서 방문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진안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내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협력 단체 및 현장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병숙 청장은 서장 집무실에서 경찰발전에 기여한 4개의 협력단체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경찰활동 및 경찰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관내 치안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한 후 각과 사무실로 이동하여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업무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임병숙 청장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병숙 청장은 "도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 직원과 협력단체들에게 감사드리며 치안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입장과 상황을 항상 헤아리고 힘겨움과 어려움에 공감할줄 아는 도민들에게 친근한 '이웃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남원세무서와 협약 체결

전주대 회계세무학과(학과장 김효진)는 지난달 29일 남원세무서(세무서장 장영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계세무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폭넓은 세무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은 남원세무서 4층 대회의실에서 장영수 세무서장, 조호형 징세과장, 이성묵 세원관리과장 등과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4명 및 재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원세무서 공무원 대상 직무연수 상호협력 △남원세무서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상호 협력 △회계세무학과 재학생 대상 현장실습 및 전문가 특강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식에 앞서 장영수 세무서장은 재학생들에게 세무서의 기능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현장실무에 관한 질문을 받는 등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의지를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진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공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산학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회계세무학과는 지방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호남 지역 세무서의 세무신고기간 학생들에게 신고 도우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군산 농어촌공, 고향사랑기부로 군산 응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달 29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김민수 지사장 및 임직원 30명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평소 '수해 피해 가구 지원',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공사의 비전인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군산 출신 김민수 군산지사장 및 임직원 30명이 군산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더욱 의미있는 고향사랑기부가 되었다.

김민수 지사장은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에 고향사랑기부가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기부가 신호탄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하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군산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군산과 인연을 맺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승환 퍼시스&일룸 대표, 전북대에 4천만원기부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동문인 퍼시스&일룸 전승환 대표(95학번)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4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승환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승환 동문은 "후배들을 더 많이 웃게 하는 데 이 기부금이 사용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정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진안군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9일 오전 8시 30분 진안고원시장 광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이해 정원 및 자투리땅에 유실수를 식재하고 가꿀 수 있도록 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 3종 2,200주를 나누어주고 식재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봄철 쓰레기소각 등 실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나무심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무와 숲이 주는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군민들을 위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지부장 이승은)는 지난달 29일 2024 꽃빛드리축제를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김제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는 지역축제 개최 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꽃빛드리축제 셀러 부스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적정가액 준수 등을 독려했다.

최근 지역축제 개최 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김제시는 꽃빛드리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제시는 지역축제 행사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근절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축제를 비롯한 김제시의 전반적인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꽃빛드리 축제 방문객들이 바가지 요금,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의 불편함이 없도록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꽃빛드리 축제의 성공 기원과 김제시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